선택 6·13지선 후보들이 풀어야 할 지역경제 현안

올림픽 이후 '일감 절벽' 현실화

(9) 건설경기 악화

민간·공공부문 동반 위축
정부 SOC예산 감축 등 영향

도내 공공·민간부문 건설시장이 동반 위축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건설업계가 가장 우려한 '일감 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어 민선 7기의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도내 공공부문 발주액은 538억원, 민간부문 발주액은 1,19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8.2%, 72% 감소했다. 공공은 철도·궤도 등 SOC, 민간은 점포, 신규주택 감소 영향이 컸다.

건설시장 위축은 정부 정책기조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올해 정부 SOC예산은 1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4% 감축됐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주택시장도 위축세다.

건설업 위축은 지역경제에도 부담이다. 2011~2015년 도내 산업별 성장률은 제조업 2.2%, 서비스업 2.7%, 건설업이 4.5%로 건설업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기 때문이다. 강원지역 건설발주액은 2014~2016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7년부터 감소로 전환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주 회원인 강원발전경제인협회의 이금선 회장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제조업까지 경기 부양 효과를 체감한다"며 "건설경기 위축은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려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시중 금리가 인상기에 접어든 것도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이자도 갚기 어려운 도내 한계기업 341개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건설업이 229개(67%)로 가장 많았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포함 신규 SOC사업 시급"

도내 건설업계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안(본보 지난 18일자 7면 보도)한 사업은 50개, 20조7,000억원 규모다. 이 중 신규 SOC사업의 예산이 64%를 차지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가 건의한 신규 SOC사업은 6개로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4조7,102억원)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2조7,715억원) △동해선 철도 건설(2조3,490억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2조631억원)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1조2,491억원) △항만 배후 융복합물류 클러스터 구축(1,045억원) 등이다.

제조업과도 밀접한 '산업 경제시설 확충'이 7개 사업 2조7,089억원 규모로 그 다음으로 많다. 신소재·비철산업 클러스터 조성(6,450억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3,500억원) 등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물관리 시설 개선' 분야는 14개 사업, 1조6,911억원 규모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강원도 상수도 누수율(20%)은 전국 5위, 하수관 보급률(74%)은 전국 13위일 정도로 물 관리 시설이 열악하다"며 "일반도로 총연장 1,946㎞ 중 67%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노후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데 열악한 인프라 개선사업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이 민선 7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